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 지원심의 총평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 지원심의 시/시조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심의 시/시조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9월 20(화) 10:30~11:3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창작활동 기반 강화 및 문학적 성과 제고를 위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 작가를 선발 및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2022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사업의 심사가 완료되었다. 지난 8월 말까지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1차 심사를 통해 총 시 40건, 시조 8건의 작품이 2차 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세 명의 2차 심사위원들은 약 2주 동안 대상 작품들을 검토했다.

각 분과의 1차 심사에도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은 모든 대상 작품들을 원점에서 재차 정독하며 그 문학적 성과를 찾아내고 아울러 다른 응모작들과 면밀히 비교 평가하는 재택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심사 회의를 통해 시 20건, 시조 4건의 지원 대상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기본적인 심사 기준인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순으로 가중치를 두며 심사하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 취지는 예년과 같지만 올해부터 그 지원 조건과 방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작년까지는 2년 이내 시집 출간이 가능한 건에 대해 일부 작품 원고 및 지원 신청 서류에 대한 평가로 지원자를 선정했다면, 올해부터 본 사업(발간지원)은 연내 출간이 예정(출간 계약 완료)되어 있는 집필이 완성된 시집 한 권 분량의 원고에 대한 심사이다. 해당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소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항목에서 적절히 반영하였다. 이는 매년 이어지는 사업의 연속 성과 지원자 간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전반적으로 심사위원회는 그 무엇보다 좋은 작품집으로의 출간이 기대되는 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숙고한 시간이 적지 않았던 만큼 취합된 각 심사자의 채점 결과에 큰 이견이 없었으나 전체적인 평가와 개별 원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선정 범위 내의 작품들에 대해서 재차 의견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다. 특히 지원의 커트라인에 가까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지원 신청 서류의 미비점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선정과 미선정을 가려야 하는 심사는 그 자체로 많은 고심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시에 좋은 작품들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일일이 여기에 언급할 수 없을 만큼 개별 작품들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결국 '시'라는 정해진 장르적 형식 안에서, 각자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그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형식의 긴장감을 생성해내려 분투하는 시에 더욱 좋은 평가가 따랐다. 특히 시와 시조가 통합되어 진행된 심사 회의인 만큼, 시-시조 분야의 같음과 차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요컨대 시조 시인은 시조의 음보를 보다 섬세하게 세분화하여 보고, 일반 시인은 시조 속의 자유로운 언어 약동에 특히 반응한다는 것이다. 심사자들은 이런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시조 분야의 대상작들도 보다 세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

소수의 지원자만을 선정해야 하는 심사가 늘 그렇듯 근소한 점수 차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원고가 있기 마련이다. 그저 아쉽다는 말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지난 1차 심사를 통과해 이번 2차 심사 대상에 오른 작품들은 나름의 장점이 단점을 넘어서는 원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매년 진행되는 지원 사업의 다음 기회에는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어 출간될 시집들이 우리 시문학의 한 성과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

시/시조 분야 2차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 지원심의 소설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심의 소설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9월 19(월) 10:00~11: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사업 소설 분야 2차 심의에서는 단편소설집 총 9건, 장편소설 총 6건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발간지원사업에 응모하신 작가님들의 그간에 노력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온 심사자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견해를 전달해보려고 한다.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2차 심의에서도 우선은 작품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았다. 본심이니만큼 단편소설은 특히 좋은 작품이 많았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실생활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한 천착이 돋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주제들도 거의 생활의 한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서사적 측면에서는 대중 소구력이 높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장르로 변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듯한 작품이 많았는데,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오히려 그런 대중 장르에도, 또 본령인 소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중간한 지대에 머물러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재를 쓰는 작가의 자유지만 그런 식의 차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장을 포함한 서술 공간 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심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작가만의 문장 톤이라고 할 만한 개성이 잘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개성이 없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설명 방식의 문장이 많았다. 작가 입장에서는 쓰기 편한 진술에 의존한 설명으로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문장에 사유나 여백의 틈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작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고 작가의 말이라고 짐작되는 문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부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화 사용에 있어서도 인물들 간의 차별성이나 개성이 없는, 생동감 없는 대화 사용이 단점이었다. 이점은 장편소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장편소설의 경우는 단편소설 작품들이 가진 밀도에 비해 본격 장편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적었다. 소재 면에서 볼 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취한 작품이 많았는데, 소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어떤 소재든 소재 자체가 문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소재든 소재에 개입하는 작가 역량이 우선이라는 점, 개인의 역사 해석 역량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또 장편소설의 경량화에 대한 견해도 있었다. 간결한 형식이되 완결성과 함께 작가의 세계관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작품을 찾기 어려웠다. 또 연작 장편소설의 경우는 소설 하나하나의 완성도나 톤이 달라서 일관성이 없거나, 아예 톤이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작품성 외에도 사업 수행 기간 내의 출판 완료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계약서상에 명기된 출간 예정 날짜가 불확실하거나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 등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오래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도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작가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전한다.

소설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 지원심의 아동청소년문학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심의 아동청소년문학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9월 20(화) 13:00~14: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사업에서 1차 심의를 거쳐 2차 심의에 올라온 작품들은 동시 12편, 동화(청소년소설 포함) 중단편 6편, 동화(청소년소설 포함) 장편 20편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원점에서 새로이 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선정 후 출간 및 우수 작품 확산 노력 등을 감안하여 채점하였다. 2차 심의는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각자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뒤 순위를 가렸으며 9월20일(화) 서울프린스 호텔에서 대면회의를 하여 최종 선정 순위 안의 작품들도 재검토와 토론을 하였고, 예비순위에 올릴 작품들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다.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작가의 주제 의식이 잘 전달되었는지,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을 하였는지 등 집필 작의 문학적 수준을 가장 비중 있게 보았지만, 2차 심의에 올라온 작품들이 모두 수준작들이었기 때문에 최종 선정작을 가르는 데 있어 출간계약서의 충실함 여부도 중요히 작용하였음을 밝힌다.

동시는 전형적인 동심주의, 다소 노회한 정서, 교훈적 동시를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흥미로운 관점과 다양한 형식적 실험에서 어린이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시인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도 너무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을 찾는 것이 동시를 쓰고, 읽고,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이들의 책무일 테다. 최종 선정작들에서 기발한 형식,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 아이들의 마음, 일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을 고루 찾아볼 수 있다.

동화(청소년소설 포함) 중단편에서는 청소년소설 단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화의 경우에도 저학년보다 고학년 대상 작품이 돋보였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처지를 반영하되 어둡고 무겁게만 다루지 않고, 억지 희망보다 자연스러운 희망을 낳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탄탄한 문장력과 개성적인 인물 또한 중요한 기준이었다.

동화(청소년소설 포함) 장편에서는 청소년소설보다 동화가 좀 더 강세를 보였다. 선정작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리얼리즘 이야기보다 상상성이 강한 판타지, 미래 SF소설, 최근 부상하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무대로 한 소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세함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이미 미래가 도착해있고,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실을 찾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할지를 많은 작가들이 문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다. 하나 소재의 특이함이나 기발한 방식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한 장편은 완성되기 어렵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시의성 있는 주제, 소재로 문학적 세계를 확장하면서도 개성적 인물과 탄탄한 서사를 갖춰 마지막까지 독자의 흥미를 지속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동시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말과 세계를 다시 발견하는 경이감을 알려주는 동시에 쉽게 흥분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차분하고 튼튼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기를, 동화는 아이들의 현실과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시야를 넓혀 지구와 우주가 처한 문제들까지 품기를 바란다. 청소년문학은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에 갇히지 말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주길, 그리고 창작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아 독자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아동청소년문학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 지원심의 수필/평론/희곡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2차심의 수필/평론/희곡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9월 20(화) 16:00~17: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 수필, 희곡, 평론 분야의 2차 심의는 수필 32편, 희곡 8편, 평론 4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사는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엄정하게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기준 속에 각자 심사했고 평균 점수를 산출했다. 심사 평점이 높은 순으로 각 분야에서 작품을 선정했고, 심사 평가 점수가 동점이거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작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필 분야>

수필 분야에서 2차 심의 대상에 올라온 작품은 수가 많기도 했지만 작품의 질적 수준이 높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차 심의에서 독특한 소재나 주제·실험성으로 다른 작가와 차별화한 글들, 사각지대인 장애인의 문제를 생생하게 드러낸 글,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깊은 성찰을 보여준 글들, 틀에 박힌 시각이 아니라 낯설게하기를 통해 일상을 새롭게 재구성한 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의 수필들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수필이 이 시대의 각광 받는 문학 분야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응모한 작품 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찰하는 글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당대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한 작품들은 적었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재적 문제를 환기하는 수필이 좀 더 많이 창작되길 바란다. 수필 분야에서 심사할 때 글의 우수성은 높게 평가되었지만 제시된 서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선정에서 아쉽게 밀려난 작품들도 있었다.

<희곡 분야>

희곡 분야의 경우 2차 심의 대상이 되는 작품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엄정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신선한 소재와 기획 의도가 좋은 작품, 전위적인 실험성으로 관객들에게 철학적 성찰을 유도한 작품, 연극적 암시와 풍자적 비유가 살아 숨쉬는 작품, 역사와 현실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근대 이전의 시대를 형상화한 경우 지금, 여기에서 왜 필요한지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전위적 실험성은 좋으나 난해성을 극복하지 못해 관객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작품도 있었다. 관객과 소통하면서 당대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희곡들이 좀 더 많이 창작되었으면 한다.

<평론 분야>

평론 분야에서 2차 심의 대상은 많지 않았다. 심사위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없었다. 제시된 심사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었기에 다른 작품과의 차별성과 완성도가 중요 심사 기준이 되었다. 심사에서 아동만이 아니라 어른과 전문가도 함께 읽으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글, 다양한 예술을 아우르는 융합적 시도의 글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아쉬운 점은 당대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도전적인 시도와 날카로운 비판정신이 살아 있는 평론, 실험적인 글쓰기의 평론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평론가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외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평론의 길에 정진해야 한다. 평론이 당대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 평론의 절망적 침체기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평론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평론계의 문제점들을 마주하면서 기존과 다른 평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내년에 더 많은 응모작들이 새로운 평론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차 심의에서 수필 분야는 16편, 희곡은 4편, 평론은 2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에게는 격려의 말과 함께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음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작가의 글쓰기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글쓰기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선정과 미선정은 모두 더 나은 글쓰기를 낳는 계기이거나 채찍질일 수 있다. 창작 지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작가들에게 큰 힘이다. 하지만 이것에만 의지한다면 문학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다. 작가들은 이 지원 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했으면 한다.

끝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코문학창작기금이라는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올해의 축제는 비록 심사와 선정 속에 끝났지만 내년에 또 새로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작가들의 건필을 기대한다.

수필/평론/희곡 분야 2차 심의위원 일동